

2008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제2외국어 정답 및 해설

[한문 I]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②	③	⑤	①	③	④	⑤	②	②	④	⑤	②	④	④	③	①	②	⑤	③	①
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⑤	③	②	①	④	⑤	①	①	④	③										

1. [해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사물의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② ㄱ는 없다.

2. [해설]

제시된 한자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다. 아래 한자의 공통점은 부수 '木'이다.

朱(주) 붉다, 東(동) 동녘, 栽(재) 심다, 植(식) 심다

3. [해설]

제시한 한자어의 공통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人情(인정), 情談(정담), 友情(우정), 情緒(정서)

4. [해설]

성어의 공통된 한자를 찾는 퍼즐식 문제이다.

附和雷同(부화뇌동) : 우레 소리에 맞추어 천지 만물이 함께 울린다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

同病相憐(동병상련) :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

5. [해설]

제시된 그림에 맞는 24절기를 찾는 문제이다. 12월에 눈이 많이 내리는 절기는 '大雪(대설)' 12.7, 8경이다.

① 春分(춘분) 3.21경. 낮밤 길이 같음 ② 立夏(입하) 5.5, 6경. 여름 시작

④ 小滿(소만) 5.21경. 농사 시작 ⑤ 處暑(처서) 8.23. 더위 물러감

6. [해설]

빈 칸에 동일한 한자 들어가는 사자성어 찾기

① 右往左往(우왕좌왕) :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② 此日彼日(차일피일) : 이날저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③ 以心傳心(이심전심)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④ 易地思之(역지사지)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⑤ 非夢似夢(비몽사몽) :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7. [해설]

성어에 나타난 色(색) 찾기

白眉(백미) : 흰 눈썹.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남

紅一點(홍일점) : 붉은 한 점. 여러 남자 중의 여자 한 명

近墨者黑(근묵자흑) :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靑出於藍(청출어람) : 푸른색은 짙은 푸른색에서 나온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

8. [해설]

성어의 속뜻 알기

① 自強不息(자강불식) :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다

② 手不釋卷(수불석권) : 손에서 책을 놓지 않다

③ 不恥下問(불치하문) :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④ 三人成虎(삼인성호) : 세 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곧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게 된다는 말.

⑤ 克己復禮(극기복례) :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다

9. [해설]

제시한 문장의 뜻과 통하는 한역속담 찾기

① 難上之木 勿仰 :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② 鳥久止 必帶矢 :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오래도록 편안하면 반드시 위태로움이 따름. ?? 居安思危(거안사위)

③ 陰地轉 陽地變 : 음지가 바뀌어 양지로 변한다. 운이 나쁜사람도 좋은일을 만날 수 있음.

④ 突不燃 不生煙 : 굴뚝에 불때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⑤ 種瓜得瓜 種豆得豆 :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김

10. [해설]

한문의 대구를 이용하여 빈칸의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財旺, 則國興 : 재물이 성하면 나라가 흥하고

財竭, 則國亡 : 재물이 마르면 나라가 망한다.

11. [해설]

제시한 글의 내용에 알맞은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山, 吾仁者所樂也, 見山, 則存吾仁. : 산은 우리 어진 사람이 좋아하는 바이니, 산을 보면 우리의 어짐을 보존할 수 있다.

水, 吾智者所樂也, 見江, 則存吾智. : 물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니, 강을 보면 우리의 지혜를 보존할 수 있다.

① 山高水長 : 산은 높고 물은 길다

② 山戰水戰 : 산과 물에서 싸웠다는 말로,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어 경험이 많다

③ 山紫水明 : 산은 붉고 물은 맑다

④ 背山臨水 :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

⑤ 樂山樂水 :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다

12. [해설]

제시된 문장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

福之爲禍, 禍之爲福, 化不可極, 深不可測也.

복이 재앙이 되고 재앙이 복이 되니, 그 변화가 다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예측할 수도 없다.

13-14. [지문해설]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면서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13. [해설] 문맥에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居無求安

14. [해설]

해석순서

일(事)에(於) 민첩하고(敏而) 말(言)에(於) 신중하다(慎)

15-16. [지문해설]

客曰: “既辨邪正, 得人而爲政, 則政將何先.” 主人曰: “先革弊法, 以救民生. 欲革弊法, 則當廣言路, 以集善策.”

객이 말하길, 이미 간사함과 올바름을 분별하였으니, 인재를 얻어 정사를 행한다면 정사에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말하길, 먼저 낡은 법을 고쳐서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 낡은 법을 고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언론을 넓혀서 좋은 계책을 모아야 한다.

15. [해설]

의문형 찾기

① 無友不如己者.-자기만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금지)

② 孝, 百行之本也.-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평서)

③ 漢陽中, 誰最富.-한양 가운데 누가 가장 부유한가?(의문)

④ 天帝使我長百獸.-천제가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했다.(사역)

⑤ 好憎人者, 亦爲人所憎.-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는자는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피동)

16. [해설]

글을 해석하여 내용 파악하기 - ‘변방을 지킨다’는 내용은 없음

17-18. [해설]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중략> 其才, 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만덕이라는 사람은 성이 김씨이고 탐라(제주도)의 양가집 여인이다. 그 재주가 재물을 불리는데에 뛰어나서 때에 따라 물건이 귀해졌다가 흔해지는 것을 능히 파악하여 사두었다가 내다 팔고 하니 수십 년 만에 자못 쌓인 재물로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17. [해설]

'於'와 바꿔 쓸 수 있는 허자 찾기 - 於, 乎, 于

18. [해설]

문장 독해 후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廢居(폐거)'는 물건을 쌓아두고 값 오르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철에 따른 물건의 소용을 잘 파악하여 많은 이문을 남긴 것이다.

19. [해설]

독음 문제이다.

* 著 1.드러나다 '저' 2.붙일 '착'

* 著名(저명) :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

20-21. [해설]

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不能通其意, 執策而臨之曰: "天下無①良馬." 嗚呼! 其真無馬耶? 其真不識馬耶?

채찍질을 함에 그 (바른)도로써 하지 않고 먹이를 먹여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게 하지 않고 울어도 그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서 채찍을 잡고 말에 다가가서 말하기를 "세상에 좋은 말이 없다."하니, 아! 진실로 말이 없는 것일까,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20. [해설]

여기서 천리마, 즉 좋은 말은 바로 인재(人才)를 비유한 것이다.

21. [해설]

글의 내용 이해

22-24. [해설]

母以橘二枚 授二子 幼子置不食 母問 "何故" 曰 "頃者 兒有過 父親禁勿食也" 父適入聞之 喜曰 "兒能不欺爾母 可以食橘矣"

어머니가 귤 두 개를 두 아들에게 주었는데, 어린 아들이 두고 먹지 않거늘,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까닭이냐?" (어린 아들이) 말하길, "얼마전에 제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서 금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침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말하길, "네가 능히 너의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으니 귤을 먹을 수 있다."

22. [해설]

글의 주인공의 태도는 "정직(正直)"이다.

23. [해설]

過(과)의 활용을 묻고 있다.

* 過(과) 1. 잘못하다 2. 지나가다 3. 지나치다

過失 : 잘못, 過信 : 지나치게 믿다, 過誤 : 잘못, 過多 : 지나치게 많다

24. [해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삽화를 찾는 문제이다.

25-27. [해설]

許生, 居墨積洞, ①直抵南山下, ②井上有古杏樹, 柴扉③向樹而開, 草屋④數間, ⑤不蔽風雨. 然, 許生好⑥讀書, 妻⑦爲人縫刺以糊口.

허생은 묵적동에서 살았다. 곧장 남산아래에 다다른 우물가에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고 사립문이 나무를 향해 열려 있는데, 두어 칸 초가집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정도이다.

25. [해설]

어구 풀이

④ 數間 : 두어 칸

26. [해설]

‘不蔽風雨’는 허생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貧困(빈곤)’이 정답

27. [해설]

한자어의 짜임

讀書(독서) : 책을 읽다 - 술목

① 修身(수신) : 몸을 닦다 - 술목

② 希望(희망) - 병렬(유사)

③ 無限(무한) : 끝이 없다 - 술보

④ 前後(전후) : 앞과 뒤 - 병렬(대립)

⑤ 晩秋(만추) : 늦은 봄 - 수식

28-30. [해설]

한시해석

(가) 百里無人響, 백 리에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山深但鳥啼. 산은 깊어 들리는 건 새 울음소리 뿐逢僧問前路, 중 만나 앞 길 물어보고는

僧過路還迷. 중 가자 다시 길을 잃어버렸네

- 강백년(姜柏年), 「금강도중(金剛道中)」-

(나) 渭城朝雨?輕塵, 위성 아침 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고

客舍青青柳色新. 객사의 푸른 버들 그 빛 더욱 새로워라

③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에게 술 한 잔을 다시 권하노니

西出陽關無故人. 서쪽 양관을 나서면 친한 벗 없다네

- 왕유(王維),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

28. [해설]

시에 나타난 소재 찾기

29. [해설]

시구 풀이

'君(군)'은 여기서 2인칭대명사로서 '그대'라고 해석된다.

30. [해설]

한시의 감상으로서 시의 주된 정서를 묻는 문제이다.

- ① (가)와 (나)의 형식은 율시이다. ⇒ 절구
- ② (가)는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③ (가)는 적막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정답)
- ④ (나)의 운자(韻字)는 '新', '酒', '人'이다 ⇒ 塵, 新, 人
- ⑤ (나)는 재회를 기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 이별의 아쉬움